

# 조경용 식물 소재의 공급과 수요에 관한 인식

- 생산자와 수요자를 중심으로 -

최민정\*, 한갑수\*\*

\*강릉원주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 1. 서론

조경용으로 생산되는 식물은 일반식물과 달리 일정 기간 어느 지역에서 성장하다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동하게 된다. 이동 중에 스트레스를 겪으며 이식된 후에는 변화된 기후, 토양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적응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잘 활착하여 성장하는 식물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통하여 고사하거나 생육이 불량한 경우도 적지 않다. 원거리에서 조경용 식물 소재를 구입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욱 소요되며 공사기간 및 공사비 증가를 초래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조경식물 대부분이 중부이남 지역에서 생산, 유통되며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적게 생산되는 지역은 강원도이다.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조경수는 약 25만 주, 생산금액은 약 63억 원이었으며, 이는 전라도(약 4천만 주, 약 1,200억 원)와 비교했을 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산림청, 2022).

그동안 조경 식물 소재의 유통에 관하여 몇몇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안형민, 2013; 조세환과 류재호, 2004; 태종욱, 1996), 생산자 및 수요자에 대한 인식 등 유통구조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경용 식물 소재 생산과 수요의 현황을 조사하고, 생산자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2. 연구방법

생산 및 구매현황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산자의 경우 조사대상은 (사)한국조경수협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업체로 정하였으며, 수요자는 강원도 내 위치하고 (사)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에 등록된 업체를 시군별로 5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생산 및 수요 업체 60여 곳에 설문지를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회수된 30부의 설문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설문내용은 생산자와 수요자의 응답자 정보, 생산 및 구매현황, 그리고 만족도 등이었다.

## 3. 결과 및 고찰

### 3.1 생산자 재배현황 및 만족도

응답자 30명 중 약 87%가 남성이며, 평균 연령은 51.7세, 대졸 이상이 73%로 나타났다. 재배기간은 11~20년, 20년 초과가 동일하게 36.7%로 가장 높았고, 10년 이하는 26.7%를 차지하였다. 생산자 중 20명은 상시 재배의 형태였으며, 나머지는 일시 재배유형에 해당되었다. 연 매출은 1억 원 이상(50.0%)이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2천만 원 이하는 27%를 나타내 매출이 양극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로 재배지역은 한 지역(70.0%)에서만 이루어지나, 다른 시군에서 재배하는 중복 재배자도 30.0%의 비율을 보였다. 강원도 생산자의 대표적인 생산방식은 노지재배(50.9%)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설재배(17.0%), 노지 컨테이너 재배(13.2%), 시설 컨테이너 재배(9.4%) 등의 순이었다. 재배면적이 클수록 연 매출 범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토지는 대체로 본인 소유가 다수였으며(66.7%), 약 33%는 임대를 통해 재배하고 있었다. 재배식물은 교목(54.3%)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관목(23.9%), 초화(15.2%) 등의 순이었다. 교목, 관목을 재배하는 종수는 교목, 관목이 1~5종으로 각각 30.0%로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초화는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종당 재배수량은 교목 2,000주 초과가 36.7%, 501~1,000주가 23.3%를 차지하였다. 관목류는 20,000주 초과가 20.0%, 나머지는 고루 분포하였다. 교목류의 재배기간은 5년 이상~7년 미만(36.7%), 관목류는 6달 이상~1년 미만(16.7%)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일상적 재배 및 관리 인원으로는 5인 이하가 56.7%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생산자 만족도의 경우 기후, 토양 등의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였으며, 인력, 장비, 교육 등의 사회환경에 대해서는 불만의 비율이 높았다. 사회환경에 대한 불만족 사유로는 생산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미흡(20.0%), 인력 및 장비 운용이 원활하지 못함(16.7%) 등을 주로 선택하였으나 만족사유로 같은 이유를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

생산자 주요 거래처는 조경업자(41.2%)가 가장 많았고, 자원을 위한 자체적인 공사 수급(21.6%)을 위해 재배하는 경우도 있었다. 판매는 주로 생산지를 직접 방문(36.7%)하거나 전화통화와 사진 검수를 통한 거래(36.7%)가 같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밖에 온라인 게시(12.2%)와 판매장 납품(10.2%)은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생산자의 판매 배송지역은 서울경기도(43.3%)와 강원도(40.0%)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같은 지역 내 판매 경험(90.0%)도 매우 높았다. 같은 지역 내 판매만족도는 만족의 비율이 높으며(40.0%), 만족 사유로는 환불, 교환의 경우가 적고(16.7%), 운반비용이 감소(13.3%)하는 것을 주

로 꼽았다. 동일지역 내에서 판매할 경우 보완해야 할 것으로는 지역마케팅(27.1%)과 생산정보의 공유(20.8%), 수목전시 또는 판매유통시설 설치(18.8%) 등이 제시되었다. 생산자가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43.3%)과 가격(40.0%)이라고 인식하였다.

### 3.2 수요자 구매현황 및 만족도

수요자의 경우 응답자는 남성 76.7%, 여성 20.0%로서 생산자에 비하여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으며, 평균 연령은 48.7세로 생산자에 비해서 낮았다.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90.0%를 차지하며, 생산자에 비해 고학력의 비율이 높았다. 수요자의 종사 기간은 11-20년(46.7%)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20년 초과(30.0%)의 순이었다. 재배방법으로 교목(61.1%)과 관목(48.4%) 모두 노지재배를 선호하였다. 한편, 초화는 특별한 선호방법이 있지 않았다. 1회 구매하는 수목의 종류와 수량은 교목류의 경우 6-10종(33.3%), 11-30주(30.0%)이며, 관목류는 11-15종(40.0%), 1,000주 초과(43.3%)의 비율이, 초화류는 11-15종(33.3%), 1,000본 초과(46.7%)가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 수요자는 교목 70.0%, 관목 80.0%, 초화 76.7%로 재배생산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유통업자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구매방법은 생산자와 전화통화, 사진 검수 후 거래하는 방법이 전체 응답자의 70.0%였으며, 생산지를 방문하는 경우도 응답자의 절반(50.0%)을 차지하였다. 수요자가 교목을 공급받는 지역은 전라도(40.0%), 강원도(26.7%)였으며, 관목은 전라도(80.0%)와 강원도(6.7%)로 전라도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생산자의 납품지가 서울-경기도(43.3%), 강원도(40.0%)인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강원도 내 공급이 강원도 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타 지역에서 공급받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통구조로 인해 강원도 수요자는 재료비 및 공사비가 상승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초화류도 전라도(30.0%), 서울-경기도(26.7%)의 공급비율이 높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해당 지역에서 공급받는 이유는 규격 및 수량 확보의 편의성(40.0%)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반비용이 증가(50.0%), 검수의 어려움(26.7%)을 단점으로 인식하였다. 수요자가 인접 지역에서 식물 소재를 구입한 경험은 대부분이 있다(83.3%)고 답하였지만,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2점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그 이유는 판매가격(13.3%)과 규격 및 수량 확보(6.7%)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에게 인접지역에서 식물소재 구매의향을 물었을 때 대다수가 구매의향이 있다(93.3%)고 말하였으며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품질(56.7%)과 가격(23.3%)을 기반으로 수목 종류와 규격의 다양화(46.7%)와 생산 위치, 수종, 규격 등의 생산정보 공유(30.0%)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론

본 연구는 강원도 생산자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조경용 식물소재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과 인식을 파악하고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강원도 생산자와 수요자 각각 30명에게 설문을 회수한 결과, 생산자는 서울-경기도에 납품하는 비율이 높고, 수요자는 전라도에서 공급받는 비율이 높아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는 인접지역 판매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으나, 수요자의 만족도는 보통 이하였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강원도 생산자는 품질과 가격을 바탕으로 수목종류와 규격을 다양화하고, 생산위치, 수종, 규격 등의 생산정보 공유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에 한정하여 수요와 공급의 인식을 파악하였으며, 추후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나라장터종합쇼핑몰. <https://www.g2b.go.kr:8092/sm/ma/mn/SMMAMnF.do>
2. (사)대한전문건설협회. <https://www.kosca.or.kr/>
3. (사)한국조경수협회. <https://kta.or.kr/>
4. 산림청(2022) 산림임업 통계연보(52호). <https://kfss.forest.go.kr/>
5. 안형민(2013) 조경수 생산실태 및 경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석사학위논문.
6. 조세환, 류재호(2004) 웹사이트를 통한 조경수목 유통정보활용 실태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2(4):21-27.
7. 태종욱(1996) 우리나라 조경수목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